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3월 18일(주일) 제1188호



사진은 지난해
고난주간 심야예배.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 하나님의 의'

3월 26~30일 오후 9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
금식기도, 미디어 금식, 십자가 목걸이, 회개의 십자가

2018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드리는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오후 9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CGNTV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실험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개인기도(침묵), 십자가 묵상(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행적 묵상), 성경읽기, 중보기도(침묵), 말씀선포,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금요일(30일) 예배에서는 개인기도(침묵), 십자가 묵상, 솔로 찬송, 가상철연 세리머니, 중보기도(침묵), 성만찬, 말씀선포, 합심기

도 등이 거행된다.

요일별 주제에 따라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나라 지도자를 위한 기도, 수요일 나라의 치유와 회복, 목요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금요일 통일을 위한 기도 등을 한다.

고난주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

은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하루 한 끼 이상 금식기도 하고 금식한 금액 현금)와 미디어 금식(드라마,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보지 않기)을 한다. 또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전후에 침묵기도를 하고, 교회 로비에 설치

된 '회개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적는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한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기간을 의미한다. 고난주일(종려주일)부터 성도요일(부활전날)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과 회개를 묵상하는 절기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 하나이다. 온누리교회는 2012년부터 사순절(四旬節, Lent) 기간에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리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행복한 불편함...교회주차장 이용 제한

오늘(3월 18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매주 주일마다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발급받은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헬로 연주자 등이다. 나머지 성도들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교회 주변 도로나 아파트 단지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온누리교회는 분기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서빙고 화재대피훈련

오늘 오전 10시~11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오늘(18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오전 10시(2부 예배가 끝난 직후)부터 11시 30분(3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된다. 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되는 건물은 서빙고 본관(본당, 비전홀)이다.

화재대피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연막기로 만든 연기가 발생하면 경보 방송이 나온다. 이때 성도들은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장소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피하면 된다. 대피장소는 동빙고 근린공원이다. 성도들이 대피하는 동안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이 출동해 모의 화재진압을 한다(관련기사 13면).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 모집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오늘(18일)부터 러브소나타 샷포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러브소나타 샷포로는 5월 30일과 31일 와쿠와쿠홀리데이홀(샷포로시민홀)에서 막 오른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하면 된다.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러브소나타 샷포로에서는 교회 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포럼, 러브소나타 전도집회 등이 진행된다. 교회 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와 이기복 교수가 강의하고, 가스펠나이트

에서는 오오시마 시계노리 목사(KGK 전국총주사), 러브소나타 전도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샷포로 현지 실행위원회는 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3월 16일 9차 실행위원회를 열었고, 지금까지 46개 교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러브소나타 샷포로에서 사용할 화관제작 봉사자를 모집한다. 화관제작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미션홀에서 한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락없는 소녀였다. 국내 최대 죽 프랜차이즈 ‘본죽’의 최복이 대표이사(서초A공동체)의 첫인상이 말이다. 그 소녀가 신앙과 사업, 선교를 이야기할 때면 눈빛부터 달라졌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신앙 정체성이 매우 분명했다. 자신을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소개하는 당당함이 돋보였다. 그녀의 삶은 롤러코스터 같다. 부(富)하다가 사업이 망해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보란 듯이 재기하는 듯 했으나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위기에 직면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려 노력하며 간증을 차곡차곡 쌓았다. 죽 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는 본죽 최복이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나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국내 최대 죽 프랜차이즈 ‘본죽’ 최복이 대표이사



선(善)한 하나님의 기업 ‘본죽’ 최복이 대표이사.

죽 전문점 ‘본죽’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본죽은 한국에만 1,800개 가맹점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죽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최복이 대표이사는 본죽 외에도 본죽&비빔밥cafe, 본도시락, 본설렁탕, NGO 본사랑, 본월드미션(선교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사회선교(구제, 구휼)와 해외선교에 쓰고 있는 그야말로 선(善)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아름다운 기업을 일구기까지 최 대표는 수차례 곱절을 겪어야 했다.

500원짜리 호떡 노점상에서 승승장구는 사업가로

최 대표의 첫 번째 사업은 500원짜리 호떡 장사였다. IMF 당시 남편(현재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이사)의 사업이 쫓박 당한 시점에 시작했다. 남편은 잘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풍족하게 살던 최 대표의 일상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많던 돈도, 좋은 집도, 비싼 차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설상가상 우울증과 신경쇠약이 그녀를 괴롭

혔다.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죽지 못해 살았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그렇게 500원짜리 호떡 파는 노점을 시작했다. 노점을 운영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노점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단속반을 어떻게 피해야 하고, 주변 영세 상인들의 견제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 속수무책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날이 속출했다. 그렇게 1년 동안 고생만 하고 노점을 접어야 했다.

호떡 장사를 접고 남편 지인의 회사에 취직했다. 음식점 창업 컨설팅업체였는데 그 회사 요리학원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다. 얼마 못가 해고됐지만 그때의 경험이 죽집을 차리는 밑바탕이 되었다.

최 대표는 장사가 안 돼 망하기를 거듭하다 권리금조차 없는 허름한 가게를 얻어 죽집을 차렸다. 그런데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왜 하필 죽이었을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죽이었거든요”

국내 최대 죽 프랜차이즈 본죽이 그렇게 탄생했다.

생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 한 것은 아니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그 과정 역시 험난했다. 개업하고 7~8개월 동안 장사가 안 돼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하루에 죽 100그릇 판매가 목표였는데 몇 그릇 못 파는 날이 허다했다. 거기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하느라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장사는 안 되고, 메뉴개발하고 시식하느라 허도 데고, 화상도 입고, 팔도 아프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견뎌요. 그 고난의 시절 본죽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메뉴를 만들었어요.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오늘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노력이 빛을 발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는 인기 매장이 됐다. 매출도 급속도로 올라갔고, 가맹점도 늘어갔다.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2010년에는 상복까지 터졌어요. 한국프랜차이즈대상 대통령상, 지속가능경영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한국소비자웰빙지수상 등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교만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노력해서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2011년 한 방송에서 본죽 가맹점에서 일어난 비위생적 실태를 고발했다. 가맹점주 몇 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먹다 남은 재료로 죽을 만들어 판매한 일명 ‘쓰레기죽’ 사태였다.

“당시 저는 초심을 잃었어요. 매출 올리는데 급급해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정신이 해이해진 거죠”

최 대표는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다. 우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사과를 했다. 그리고 모든 가맹점 사업을 중단했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 오픈을 중단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래도 최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정공법을 택했다.

가맹점 쇄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기업 쇄신에도 들어갔다.

“예전에는 그냥 선한 부자였어요. 돈 벌면 좋은 일에 썼지만 내가 돈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깨달았어요”

기업의 정체성도 재정립했다.

“‘본죽은 하나님 기업’이라고 선포했어요. 전 직원 채플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고요. 위기가 초심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어요”

최 대표가 선교에 목숨 건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도 바로 이때다. 그때부터 그녀는 ‘비즈니스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확립했다.

“꼭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대표이사, 이사장, 창업주, 성공한 사업가 등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최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있다. 그 호칭이 그녀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본죽’이라는 기업을 통해 선교하는 것이 비전이자 소명이예요”

최 대표는 어릴 가나 누구를 만났든 하나님께서 본죽이라는 비즈니스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는 게 옳다고 고백한다. 자신도, 기업도 모두 선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그녀가 말하는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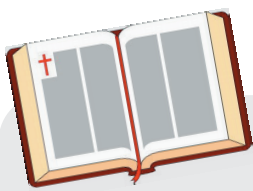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러다 전쟁고아를 돕는 사진전을 열기 위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오갈 데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엄마 집에 모신 적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선교사에게 방 한 칸 내드린 일을 계기로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36칸짜리 선교사 전용 게스트하우스(본월드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선교사 숙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다. 사업을 선교에 접목해서 해외매장을 ‘선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사업을 선교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매장(선교매장)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겪는 비자 문제, 생계 문제, 사역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부자였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또 다시 성공한 창업가가 된 최복이 대표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삶에는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는데 우리는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뜻을 돌아보아야 해요.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신앙은 삶의 액세서리나 문화생활의 연장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은 생명이요, 밖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구속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제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을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씨앗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마다 씨앗의 의미가 다릅니다. 씨 뿌리는 농부 비유에서는 씨앗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자녀들이기도 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31~32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상태로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는데 그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말하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겨자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두꺼운 나이테가 있고 울창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겨자나무는 4m 정도이고 대개는 1.2m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숙어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작다고 할 때 ‘겨자씨 같다’는 관용적인 숙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는 표현을 믿음의 아주 작은 영역을 설명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숙어로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자라고 변화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력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제국 한복판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너무 미미하고 영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무능력해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세력을 보여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능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웅장하고, 힘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여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실망한 것처럼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웅장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31~33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겨자씨처럼 자라나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세상과 정반대의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겨자씨 같이 작고 미미하게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생명력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작은 씨앗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붙잡고 새소리를 들으라. 그 씨앗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믿기에 그 씨앗이 자라나 나무에 깃들게 되는 새소리를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된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작고 미미한 그 작은 씨앗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씨앗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재생산 되는 것이 전혀 없던 물질에 생명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창조의 생명력이 씨앗에 담겨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제도, 문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씨앗자체에 있는 생명력으로 자라고 변화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큰 민족은 수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이 수십만 명으로 성장했을 때 로마제국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데모해서 로마제국을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집회를 통해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앞에 로마제국이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했을 때 중세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힘이 로마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많은 수가 모여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것과 다른 시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호를 몇 번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조용하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방식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서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방식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그 이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 안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자라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많은 새들이 깃드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번식, 생명의 성장, 생명의 확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겸손

둘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수적인 확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숙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13면에 계속)

조선을 세상에 알린 ‘칼 귀츨라프’ 선교사를 아시나요?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 ‘선교사’와 ‘기독교 정신’

‘칼 귀츨라프(1803~1851)’ 선교사는 조선을 세상에 널리 알린 인물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다. 흔히 초교파 단체 ‘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지정한 1884년을 한국 개신교 선교 원년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칼 귀츨라프 선교사는 그보다 52년 먼저 조선에 왔다. 복음 전파는 물론, 식량 배급과 의료사업 등에도 헌신했다. 그에 이어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됐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 의료, 민족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국의 근대화’와 ‘한국 기독교 부흥’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방인이라 불렸던 선교사들이 있었다.



칼 귀츨라프 선교사(①), 칼 귀츨라프 선교 기념비(②), 그가 처음 도착한 고대도 안항(③).

지난 11일, 아주 뜻깊은 곳을 찾아갔다.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古垈島) 안항이다. 열은 안개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졌다. 186년 전 처음으로 조선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감격 그 자체였다.

1832년 7월 23일, 바로 이곳 보령시 고대도 안항에 서양 상선 ‘로드 애머스트호’가 들어왔다. 이 배에는 통역관이자 의사인 칼 귀츨라프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조선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선교사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한 1866년보다 3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에 상륙한 1885년보다 53년이나 앞섰다. 조선에 온 최초의 가톨릭 선교사 모방 신부가 내한한 1836년보다도 4년이나 빠르다.

그 이름 선교사가 되기까지

칼 귀츨라프는 독일에서 태어난 폴란드계 유대인 혼혈인이다.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네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술하에서 자랐다. 몸이 몹시 허약했는데 그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새어머니의 학대였다. 술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꿈이었다. 그는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꿈을 꾸면서 그 힘든 나날을 견디고 또 견뎠다. 아무리 아파도 세계지도를 보면서 아픔을 잊었다. 세계 일주는 그의 유일한 꿈이자 희망

이었다. <바젤 선교잡지>를 보면서 선교사의 꿈도 키웠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에게 신학교 진학은 높은 장벽과 같았다. 사정이 어려울수록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간절해졌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칼 귀츨라프의 ‘충성의 시’를 읽고 감명 받은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황제는 그가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신학공부마저 중단해야 했다. 건강을 회복하고 있던 그에게 대학 교장이 연락을 했다. 네덜란드 해외 선교회에서 급하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데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귀츨라프는 곧바로 신청했다. 질병도 선교를 향한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

1826년, 칼 귀츨라프는 그토록 꿈꿨던 선교사가 되어 인도네시아로 파송됐다.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하나 더 있었다. 중국 연안을 거쳐 조선과 일본을 방문해서 동아시아 선교 비전을 이뤄내는 것이었다.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동아시아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태국도 갔다. 그는 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이기도 하고, <태국어 성경>을 처음 집필한 인물이다.

고난의 연속,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거침없던 그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쳤다. 아내와 쌍둥이 딸 한 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것. 몇 해 뒤에는 남은 딸마저 하나님 품에 안겼다. 당시 귀츨라프 선교사 또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선교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1832년, 칼 귀츨라프 선교사는 상선 ‘로드 애머스트호’에 몸을 싣었다. 로드 애머스트호의 항해 목적은 새로운 통상지 개척 및 탐사였지만 귀츨라프 선교사의 목적은 달랐다. 선교지 개척과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다. 1832년 7월 17일 칼 귀츨라프 선교사와 그 일행이 조선 연안 몽금포 앞바다에 도착했지만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다. 당시 조선은 쇄국정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몹시 경계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칼 귀츨라프 선교사는 7월 23일 고대도 안항에 첫 발을 내딛었다.

고대도 안항은 고대도항에서 동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2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에 가면 귀츨라프 선교 기념비와 귀츨라프 선교사가 다녔던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 기념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그 앞으로는 안항 몽돌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 바다 건너 조선에 온 서

양 선교사 칼 귀츨라프의 선교 열정을 묵상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다.

“조선에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고대도(古垈島)는 해안선 길이 4.3km, 크기 약 0.82km²에 불과한 아담한 섬이다. 예로부터 오래된 집터가 많아 ‘고대도’라고 불린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고대도는 북쪽으로 안면도, 동쪽으로 장고도, 남쪽으로 삼시도, 서쪽으로 원산도에 둘러싸여 있다. 조선시대 만해도 고대도에 수군이 주둔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안전했다. 귀츨라프 선교사와 그 일행이 몽금포 앞바다에서 고대도 안항으로 이동한 것도 그 때문이다.

칼 귀츨라프 선교사는 고대도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조선의 국왕 순조에게 전달할 선물을 꾸렸다. 조선 국왕에게 올리는 청원문과 지리·천문·과학서, 유리그릇, 망원경 등의 서양문물, 한문 성경 <신천성서>, 기독교 전도책자가 그것이다.

당시 충청감사 송희근이 작성한 예물 목록에 전도책자로 추정되는 <본국도리서> 26종에 대한 기록이 있다.

“나는 이 땅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칼 귀츨라프 선교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고대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 전도책자와 복음서를 배포했다. 조정관 비서인 양이를 설득해서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다. 바로 그것이 한글로 된 최초의 주기도문이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다. 칼 귀츨라프 선교사는 굶주리는 조선인들에게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고불(감기)과 같은 잔병을 앓는 환자 60여 명을 치료해줬다. 마을 주민들을 제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귀츨라프 선교사의 진심이 고대도 주민들과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민들과 고관들이 귀츨라프 선교사와 그 일행에게 단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책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강경했던 쇄국정책으로 결국 칼 귀츨라프 선교사와 일행은 조선을 떠나야만 했다.

“이 첫 전도는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한다. 조선에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바랄 뿐이다.”

칼 귀츨라프 선교사와 그 일행이 고대도에 머문 날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활동이 결코 작거나 헛되지 않았다. 그가 최초로 번역한 주기도문이 한글 성경번역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1832년 11월 칼 귀츨라프 선교사가 <중국의 보고>라는 잡지에 발표한 <한글에 대한 소견>이라는 논문 덕분에 서양에 조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고대도항 바로 앞에 있는 ‘동일교회 고대도 선교센터’와 고대도교회 2층 바나바홀에 가면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발자취를 만나 볼 수 있다. 동일교회 고대도 선교센터에서는 ‘로드 애머스트호’ 배 모형과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선교활동, 한국 선교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고대도교회 2층 바나바홀에 가면 귀츨라프 선교사의 사역과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고대도교회 박노문 담임목사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선교적인 태도를 배우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교 그리고 선교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에 빛을 많이 진 사람들이다. 이방인이라 불리던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기독교 정신, 근대화 등이 가능했을까?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와 선교사 덕분이다. 선교와 선교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흔히 타국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른다. 선교사(宣教師)는 한자로 베풀 선, 가르칠 교, 스승 사자를 쓴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한자가 담고 있는 의미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 조선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신앙과 학업과 민족애를 가르친 진정한 스승이었다. 그들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이룩한 일들이 무궁무진하지만 대표적인 업적을 꼽으면 교육, 의료, 민족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주안점을 둔 ‘교육’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둔 것은 교육이었다. 특히 여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한국 여성들은 사회진출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삶의 긍지와 자립심을 갖기를 소망했다. 1886년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현 이화여자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을 창립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이듬해에는 고종 황제로부터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교명과 현판을 하사받았다. 이는 이화학당이 국 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임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한국 여성들이 긍지와 존엄성을 회복하기를 바랐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통, 중등, 고등 과정으로 교육을 시작했고 1908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했다. 1910년에는 4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위), 알렌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아래).

년제 대학교를 설치해서 1914년 신마실라, 이화숙, 김애식 등 한국 최초의 여성 대학교 졸업자를 배출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20여 년 동안 여성지도자 양성과 학교경영에 전념하면서 기독교 가치관과 복음을 함께 가르쳤다.

이화학당처럼 고종이 교명과 현판을 하사한 학교가 또 있다. ‘배재학당’이다. 배재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W.B.스크랜튼의 집을 구입해서 학생 2명을 가르친 것이 모태다. 그해 10월에는 학생이 20명까지 늘어났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이것을 강조했다.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가르침은 기독교적 교훈(마 20:26~28)으로 봉사적인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일반학과 외에도 연설회와 토론회 등을 열고 사상과 체육 훈련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암기식으로 진행되는 교육방식을 이해중심적인 교육방식으로 변경하는데도 공헌했다.

의료사역과 한국의 의학발달史

선교사들은 교육뿐 아니라 의료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한국 의학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의료선교는 1884년 9월 내한한 미국 출신 호러스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선교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는 의술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 이듬해 1885년 고종의 윤허로 그는 한국 최초의 근대병원인 ‘제중원’을 설립했다. 제중원은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당시 호러스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서양

의학과 보건의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1893년 영국 출신 올리브 에비스 선교사가 호러스 알렌 선교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제중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의학서적을 역간하고 1899년부터 정규의학 교육을 시작했다. 1904년 제중원을 신축하였고, 미국의 사업가 루이 세브란스의 기부금을 받아 세브란스 기념병원(Severance Memorial Hospital)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의료인 후진양성과 근대식 의료발전을 위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인 7명을 배출했다. 그 이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발전했다.

에비스 선교사는 선교와 근대교육을 위해 조선기독교학교(Chosun Christian College)도 설립했다. 조선기독교학교는 이후 연희전문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였는데 이곳은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다. 올리브 에이스 선교사가 조선에 머문 40년은 근대 의학 발전과 한국 의학사에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자유와 독립 정신과 3.1운동

1919년 3월, 한반도 전역에서 3.1운동이 벌어졌다.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3.1운동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일제가 선교사들을 3.1운동의 배후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선교 본부가 발간한 1919년 한국의 상황을 기록한 두 권의 책자에는 선교사들이 지켜본 3.1운동의 진상이 기록되어 있다.

“3.1운동은 비폭력시위였고 이것은 독립을 위한 항거였다. 3.1운동 과정에서 미국인이 일

제경찰에 체포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폭력성에 동조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만행적인 폭력정치에 분노했다. 일제의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다고 여겼다. 비록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정신이 자유와 독립과 자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취시켰다. 이는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3.1운동 직후 일본 총독부 내무부 장관 우사미 가츠오는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우사미 가츠오는 그 자리에서 “많은 한국인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교사들이 3.1운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하게 된다”고 협박했다.

선교사들이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염포를 놓은 것이다. 3.1운동 이전까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식민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본국의 훈령을 받았다. 따라서 3.1운동을 직접적으로 돕는 선교사가 드물었다. 당시 조선은 일제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와 부딪치면 조선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여졌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과 3.1운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도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스코필드 박사다. 스코필드 박사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갑성에게 두 가지 부탁을 받았다. 하나는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백악관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만세시위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달라는 것이었다. 스코필드 박사는 이를 수락했다. 3.1운동 때 일본군이 제암리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스코필드 박사의 사진 때문이었다. 그는 보고서 <꺼지지 않는 불꽃>에 3.1운동이 왜 일어났고, 한국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국 입장에서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조선인들에게 “교육에 힘써야 하고, 근면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의 권면에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있다.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에 일제가 만행을 멈추도록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일제의 만행 앞에 더 이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당시 선교사들이 남겨 놓은 기록은 3.1운동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일제가 폭도로 지목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성경과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교가 부산 일신여자학교, 광주 수피아여자학교, 목포 정명학교, 군산 제일고등학교, 전주 신흥학교 등이다. 기독교 학교는 대부분 서양 기독교인들이 세웠다. 데이비스 일신여자학교 교장은 3.1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김아각(커밍) 선교사는 광주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서 목포로 가져오기도 했다. 3.1운동 당시 숭실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던 태극기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마뎃 선교사가 태극기를 압수하려는 일제를 막아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세계 선교를 위해 더 폭넓게 기도하십시오”

온누리교회 선교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제안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 끝에 세워진 기관이 ‘온누리 선교 연구소’다. 넬슨 제닝스 박사는 온누리 선교 연구소에서 ‘선교목사’, ‘선교컨설턴트’, ‘국제연락’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선교 사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교 리더십들에게 제안과 조언을 하고, 국제 학회에서 발표도 한다. 넬슨 제닝스 박사는 온누리교회 선교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기도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넬슨 제닝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넬슨 제닝스 박사님과 온누리 선교 연구소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넬슨 제닝스 박사입니다. 온누리 선교 연구소에서 선교목사, 선교컨설턴트, 국제연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온누리교회와 동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섬기다보니 제 역할은 ‘선교목사’이자 ‘컨설턴트’였습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로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일본 어예배와 영어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선교목사로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컨설턴트는 선교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교 리더십들에게 제안과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들께서 저의 제안과 조언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최근에는 국제연락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국제 교회나 단체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온누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반대로 그 교회를 배워서 온누리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온누리교회가 국제 선교기관과 협력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인 학회에서 온누리교회 선교 사례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온누리교회를 알게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온누리교회 선교 연구가 왜 필요합니까?

“온누리교회 선교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선교를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찰하고, 참여하고, 듣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자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내부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 선교 사례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부자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자의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계 선교에는 다양한 문화가 포함되



넬슨 제닝스 박사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누리의 필요를 돌보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려면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대적 변화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2기 온누리교회 선교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찾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온누리교회 선교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주제들을 연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은 주로 온누리교회의 선교 영성, 선교 역사, 선교 방향, 선교 DNA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누리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기에 ‘선교지향적 교회’라고 하는지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故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하 목사님을 직접 뵈는 기회가 없었지만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묘소에도 몇 번 씩이나 찾아 감사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환경과 역사적 흐름에서 비추어 보는 연구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온누리교회 선교도 성장했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금은 이주민사역이 활발합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변화와 온누리교회 선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요즘은 ‘NGO 더멋진세상’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올해 학술저널에 실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온누리교회의 선교기도모임’입니다. 이 연구결과를 여름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인 조선족의 가계에 대한 논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기독교인들의 협

력에 대한 논문도 흥미롭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는 서로 좋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늘 협력해왔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온누리교회도 관련된 연구주제입니다.”

온누리교회 선교 사례를 접한 국제 교회나 선교기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회나 세미나, 저널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선교 사례를 발표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외국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국제 교회와 선교기관들은 온누리교회 선교 사례를 들을 때마다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감탄합니다. 본인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선교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선교 규모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단체는 온누리교회보다 큰 규모로 사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나 기관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큰 규모의 선교와 사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규모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선교와 사역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선교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게 기도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온 누리가 아니라 온 누리의 일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임 가운데 기도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누리교회의 사역, 온누리교회의 선교사, 한국의 교회,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누리의 필요를 돌보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위해 온누리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간다 4. 아프리카 르완다

우리 마을에 ‘생명수’ 터진 날

르완다 가훈도 마을 식수문제 해결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멋진 내일’을 선물하기 위하여 사막에 길을 내고, 산 위에 마을을 짓고 있다. 선교사들조차 가지 못하는 곳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손길이 닿고 있다. 본지에서는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르완다 가훈도 마을 주민들이다.

/ 편집자 주



가훈도 마을 우물 공사 현장(왼쪽), 응호망과 ECD센터 아이들을 위한 성경 캠프(오른쪽).

치솟는 물줄기 뒤로 무지개가 활짝 피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아프리카 르완다 ‘가훈도 마을’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고 춤을 췄다. NGO 더멋진세상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식수 문제가 해결됐다. 가훈도 마을 주민들은 지난 달 22일을 예수님이 생명수(生命水)를 터트려 준 날로 기억하고 있다.

가훈도 마을 사람들은 물통을 들 수 있는 힘

만 있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을 뜨러 다닌다. 이제 겨우 네댓살 된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침저녁으로 왕복 두 시간을 걸어 물을 뜨러간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물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아이들이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오느라 기진맥진한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가훈도 마을에서는 5인 가족이 물 20리터를 2주 정도 사용한다. 오로지 마시는 것 외

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물이 귀하다. 빨래도 안하고 씻지도 않아서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산다.

하늘 위로 솟구치는 ‘깨끗한 물’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5년 동안 ‘더 멋진 마을’로 개발한 응호망과 마을은 가훈도 마을과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응호망과 아이들의

옷과 몸은 말끔하다. 아이들을 씻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 떠오느라 기진맥진 하는 아이도 없다. NGO 더멋진세상이 만들어준 14개 식수탑에서 하루 2번씩 물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가훈도 마을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2개의 식수탑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이 가훈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마을 주민 메리 씨는 NGO 더멋진세상이 우물을 파준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우리 마을에 우물을 판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우리 마을의 식수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우물 공사가 시작됐다. “금방 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던 인부의 말과 달리 깨끗한 물을 보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 같았다. 땅을 30~40m를 파도 물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NGO 더멋진세상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파고 또 파다. 80m가 넘어가자 드디어 물이 터졌다. 하늘 위로 솟구치는 깨끗한 물을 본 메리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5km를 걸어 물을 뜨러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쉽고 간편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모두 NGO 더멋진세상 덕분이에요.”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차세대 르완다 아웃리치 간증

지구 반대편 친구들을 보면서



이대이 학생
(양재 소년1부)

아프리카 르완다 아웃리치 광고를 보고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부모님께 신청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엄마는 아웃리치 비용을 스스로 후원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막냇동생이 “내가 해 줄게”라며 저축한 돈을 헌금하겠다고 했고 그 덕분에 르완다 아웃리치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은 무척 지저분하고 아주 가난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나는 아이들이 가난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는 르완다 응호망과 ECD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풍선 불고,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판박이를 붙여주면서 놀았다. 나도 신나고 친구들도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이 너

무 좋았다.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했다. 응호망과 친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그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감동 받은 일은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를 방문했을 때였다. 주일예배 특수를 섬기려고 가훈도 마을 교회에 갔는데 아이들이 천막 아래에서 서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바닥은 진흙이었다. 그 아이들은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뛰고 있었다. 나는 앉아서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달랐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개했다. 나중에 커서 르완다에서 선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환경이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밀턴 목사
(라투갈러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다족을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 라투갈러교회의 밀턴 목사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와 라투갈러 마을 주민들을 향한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의 사랑에 감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주 뜻 깊은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라투갈러교회 및 청소년비전센터 완공감사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날 감사예배를 위해서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오셔서 축복해주신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라투갈러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축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마을 주민들 모두가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뤄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과 무료 진료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기대가 큼니다. 청소년센터를 통해 배 다족 청년들이 다음세대의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투갈러 마을과 베다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 NGO 더멋진세상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를 만나러 꼭 스리랑카에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을 뵈러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전문가 기고

톨스토이 작품으로 본 기독교 정신



최윤 교수
(프랑스어예배)
소설가, 서강대 불문과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 아마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가 태어난 러시아보다 그의 이름이 더

익숙할 정도이다.

톨스토이라는 거대한 작가를 수식하는 말은 무수히 많다. 그는 무엇보다 소설가로 명성을 굳혔지만 사상가이고, 교육이론가이자 실천가, 농민운동가였다. 그런가하면 우화작가이기도 하다. 또한 톨스토이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다.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톨스토이의 많은 글들이 종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작가 톨스토이는 당연히 예술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다. “예술은 우리의 사고를 맑게 하고 영혼을 고취시키며 우리의 노동과 사랑의 삶을 위해 필요한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예술을 사랑했다. 만년의 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는 “예술이 이룩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에 의하여 보존되는 동포관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톨스토이는 당대에 쓴 믿음의 글들을 통하여 예술, 문학을 실천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소설가라 하겠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많은 책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서적들도 수없이 출간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책들과 신앙서적들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깊은 골이 놓여있다. 세상이라는 유리벽을 넘는 믿음의 서적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 깊어진 골을 매우는 역할을 문학이 종종 감당한다. 예술로서의 문학작품은 늘 구체적인 현실과 현실 너머의 것을 동시에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그렇듯, 톨스토이도 세상의 어두운 심연에서 젊음을 보낸 허무주의적 방황의 전적(前蹟)이 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황량한 내면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들은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게 한 인간을 지배하는 영적인 경험의 다양한 양상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다.

거듭남 그리고 그 이후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를 탈고하는 50세 즈음에 거듭난 이후, 무수한 작품과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꾼 신앙을 열렬히 간증했다. 그는 〈나의 종교〉란 책에서 “나의 삶의 전체는 갑작스런 변화를 겪었으며, 내가 한때 원했던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한때 나에게

선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악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악하게 여겨졌던 것을 이제 선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간증은 이렇듯 전격적이고 의도적으로 단순화해서 그의 회심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1886년)과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1893년)는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믿음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회심에까지 이르는 삶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톨스토이가 회심한 직후 몇 년간에 쓴 작품이니만큼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녹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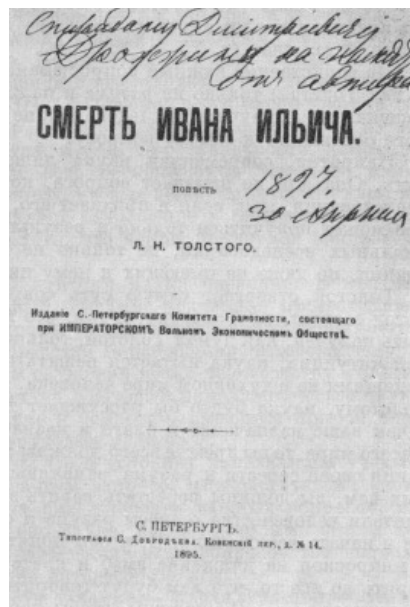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삶을 무디게 하는 것들

톨스토이 자신의 회심에 대한 설명이 단순 명료했듯,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내용의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쉽고도 간결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반 일리치의 과거는 지극히 단순 평범했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끔찍했다”고 모순어법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한 법학도 ‘이반 일리치’의 젊은 시절부터 중견 법조인으로서 45세에 죽기까지의 삶을 추적하는 전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반이 평범한 것은 그의 삶을 추동하는 것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바로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며 지극히 비윤리적인 욕망들이다. 가족의 큰 기대를 짊어지고 있고, 집안의 ‘착한 애’로 불리는 이반 일리치의 의식 속 진면모를 작가는 가감 없이 보여준다. 죽음이 그를 엄습하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수월하게, 편하고 즐겁게, 법도에 맞게 소위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다. 필요에 따라 비리도 저지르고, 인맥을 동원해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위로 승진하며,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탕하고, 가족 내에서의 의무에서 도망해 일로 피신하는 전형적인 러시아 관료의 모델을 보여준다. 혹자는 이런 주인공의 설정을 당시 러시아의 고위층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독자들을 한층 더 인간의 내면으로, 영적인 각성의 경계로 이끌고 간다. 세속적 질서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수직적 상승 구조와 그에 대비되는 인물의 내면적 인식으로 내려가는 하강의 구조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반 일리치를 지배하는 죄성에 대한 그의 무신경, 무감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일깨운다.

이 작품을 러시아 사회의 비판으로만 읽는다면 후반부 전체를 지배하는 이반 일리치의 두려움의 근본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마치 인간이 수시로 저지르는 습관적 죄의 목록에 다름 아니다.

죄는 ‘제대로 된 삶’이라는 세속적 행동규



1895년 러시아판 〈이반 일리치의 죽음〉(왼쪽),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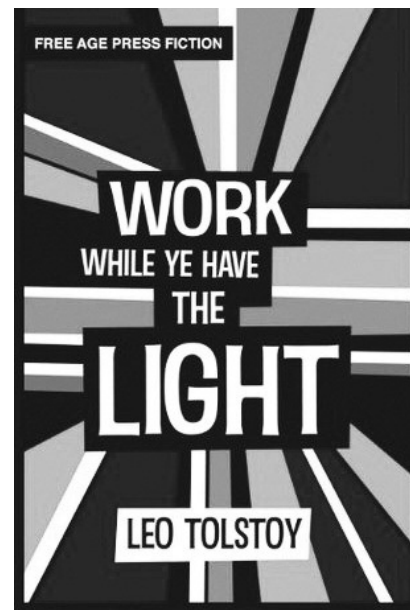
범에 의해 정당화되기에 깊이 숨겨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반 일리치가 앓고 있는 병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이며,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 서서히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회개의 마음이 미미하게 그의 내면에 돌아온다. 이는 후반부로 갈수록 강화된다.

이반 일리치는 사망하기 한 시간 전,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빛을 보게 된다. 이 빛이 그를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 저자는 분명하게 이 빛에 대해 명명하지 않지만 “죽음이 있던 자리에 빛이 있었다”는 언급으로 죽기 직전 허락된 이반 일리치의 구원으로 작품을 끝맺는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좋을 수가!”라는 주인공의 외침과 함께 육신의 죽음을 누군가가 선고하는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죽음은 끝났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며 빛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의 구원으로의 여정에 농민 출신의 젊지만 보잘 것 없는 하인 ‘게라심’을 간과할 수 없다. 유일하게 헌신적이었던 게라심은 겸손한 인격과 삶으로 이반 일리치의 굳어진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세속 질서에 무뎠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혹은 주변의 무수한 이반 일리치에게 게라심이 되라는 권면으로도 읽힌다. 문화, 전통, 관행 또는 유행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디게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이 작품의 유익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늦어도 …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톨스토이의 단편집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에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늘 러시아의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꿈꾸었던 톨스토이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하나였던 트라안 황제 치하의 한 기독교 공동체 삶에서 그 원형을



찾고자 했던 것 같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소(소아시아 남동부에 있던 갈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사도 바울의 고향)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 ‘줄리어스’와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이 자라 친구가 된 그 집의 노예의 아들 ‘팜필리우스’이다. 이 두 사람의 교차하는 삶을 통해 톨스토이는 인간 구원 드라마의 또 다른 국면을 형상화한다.

줄리어스는 반항을 해보지만 아버지의 아들답게 결국 부와 출세, 명예를 쫓아가는 삶을 산다. 마치 시대와 장소만 이동한 이반 일리치의 연장선과 같다. 반면 노예 출신 팜필리우스는 그 사이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이 줄리어스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팜필리우스와 만나게 안배한다. 작품은 많은 부분 팜필리우스의 기독교적 삶, 가치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줄리어스에게 참을성 있게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권고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면에서 팜필리우스는 기독교 변증가의 면모를 띠고 있다.

삶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친구의 공동체로 가고자 하는 줄리어스의 앞에 세 번에 걸쳐 지식인의 면모를 한 인본주의자이자 의사인 ‘낮선 이’가 나타나 그 길을 지연시킨다. 〈천로역정〉의 ‘속세의 현인’을 닮은 이 지식인의 탈면에 속아 줄리어스는 일생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은 말년에야 복음에 눈과 귀가 열려 친구 팜필리우스의 기독교 공동체에 귀의한다. 특히 박해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의 처형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선포할 기회를 달라는 팜필리우스의 부탁은 줄리어스가 회심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줄리어스의 구원을 위한 팜필리우스의 지혜와 끈기도 본받을 만하다. 그 덕분에 줄리어스는 죽음이 그의 몸을 어떻게 데려갔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로 20년을 그 공동체에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아무리 늦어도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다.

불만한 공연 뮤지컬 '요셉'

만약에 내가 요셉이 된다면?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뮤지컬 '요셉'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있다. 청춘이라는 말을 잊고 학원과 도서관으로 향

뮤지컬 요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선물한다.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던 요

하고 있다. 생기를 잃은 채로 말이다.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청년 33%가 정서적 처치가 시급하다고 한다.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뮤지컬 한 편이 나왔다. 뮤지컬 '요셉'이 그것이다. 뮤지컬 요셉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온갖 곡절 끝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뮤지컬 요셉의 주인공 호영은 만년 취업준비생이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각박한 현실을 살면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 어느 날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에 무엇인가에 끌리듯 교회에 간 호영이 예배에 참석했다. 그날 예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야기를 듣던 호영이 갑자기 요셉이 살던 시대로 타임슬립(time slip)한다.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갇힌 호영은 자신이 요셉이라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인다. 요셉이 된 호영은 요셉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삶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서 비참하고 처참한 삶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운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호영은 작지만 소중한 꿈을 품고 도서관으로 향한다.

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버린 가족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위기와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청년들과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이다.

뮤지컬 요셉의 제작진은 "취업준비생 호영이 요셉이 되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 힘들지만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뮤지컬 요셉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출연진도 탄탄하다. 프로듀싱은 연극 '마리아 마리아'로 제10회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고, 2013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대상 뮤지컬 부문 수상을 한 최무열 프로듀서가 맡았다. 최무열 프로듀서는 뮤지컬 '바울', '같은 기독교적인 공연뿐만 아니라 연극 '오셀로와 이아고', '햄릿', '사랑', '오셀로투맨', 'ALONE', '하모니' 등 다양한 공연을 연출했다.

취업준비생 '호영' 역은 배우 박두희, 호영에게 삶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역은 배우 김지혁, 요셉에게 사랑과 배려를 깨닫게 해주는 '아스낏' 역은 배우 이나영이 맡았다. 이외에도 김홍부, 정재희, 김재민, 박경훈, 김태일, 박경화, 박수연, 조아라, 정아름, 조영재 등의 배우가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요셉은 4월 14일까지 서울시 중구 공감아트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에 막 오른다. 만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서 공감아트홀 1층에서 영상중계도 한다.

문의: 1833-5591

두란노 신간

기도의 가치와 능력



《기도의 사람》
유진소 저 | 두란노 | 15,000원

《기도의 사람》은 17명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기도 능력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교제의 장'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 기도의 가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것 이상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셉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기도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 수업》
한규삼 저 | 두란노 | 11,000원

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청지기는 삶이 내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일들을 잘 경영해서 주인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지기 수업'을 받아야 한다.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영혼을 돌보고, 타인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보다 소중할 때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물질관은 탐심을 만들고, 재물이 우상이 되도록 부추긴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선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잘 관리해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차세대 교사, 학부모, 성도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다음세대 응원단’ 840명 참석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다음세대 응원단’이 지난 15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올랐다. 이날 집회에는 차세대 교사와 학부모, 성도 840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임희창 장로의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격려 영상 상영, 조승연 교사의 간증,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담당)의 메시지,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희창 장로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

시고, 다음세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사, 부모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상준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차세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조승연 교사(양재 고등부)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

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고, 한지유 교사(서빙고 영아 3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로서 차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3월 22일에도 진행된다.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오후 7시 30분에 서정인 목사(한국 컴패션 대표)가 강의한다. 다음세대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차세대 교사, 부모,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서빙고 3월 만남의 잔치

일시: 3월 25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
대상: 1월 12일~3월 10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강서 김성철 김종범 백은희	한상모 마포 김미란 김미진	최재용 허선영 양천 김영숙	이춘 김미도리 이의춘 정재연 조선희
고양은평 김미숙 김양희 문혜영 송기욱 오수근 유혜빈 전진성	박연미 신동윤 황은상 서빙고 강나율	여의도 남태형 양수연 장태평 한혜원	일산 안철현 한혜민 중종로 문지영 박성인
관악금천 서가영 이순이	성동광진 권준오 김동수 김우영 김은정 변광철 이만숙 최명숙 최혜윤	영등포구로 김민수 김지연 용산 고여진 박혜정 서지현 양혜연 홍범희 황찬석	신주현 임종현 장명순 한강 이지나 최민경 최진영
광명 류지나	노원 유명희	성북 임종민 최유란	S브릿지 김대중 김혜진 문성호 신종환 이금풍 정현 조울
동작 김은성 김태암 박소현 이우석 장주연 정숙자	신용산 김슬지 박진영 정진만	이수 김윤창 김지숙 박지희 허은정	

군선교를 위한 콘텐츠 회의

군선교팀, CGNTV, 군종목사 긴밀한 협력 약속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하여 온누리교회 군선교팀, CGNTV, 군종목사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군선교를 위한 콘텐츠 회의’가 열렸다. 한화수 목사(군선교팀), 나영욱 장로(군선교팀), 함태경 경영본부장(CGNTV), 정비호 중령(8군단)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군선교 현실 보고,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선교 사례 보고, 문화콘텐츠 제작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종길 목사(수기사)는 “전도의 황금어장이라는 군대에 서조차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회를 소개하고 장병들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호성 팀장은 “군교회에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한 다음 예배인원이 증가했다고 들었다”며 “올해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군교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선 기자

부천,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특강

부천 온누리교회가 오늘(18일) 오후 4시 본당에서 ‘크리스천의 재정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대상은 대학청년이다.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특강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재정관과 재

정관리 방법을 가르쳐준다. 강의는 이재문 팀장(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이 한다.

문의: 032-322-9686

/ 권한승 기자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 개최

4월 2~4일 오전 10시 서빙고 두란노홀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목회자와 사모, 신학생, 선교사가 대상이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에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 ‘영성일기 단원별 핵심강의’, ‘영성일기 훈련 사례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강사는 유기성 목

사, 박리부가 사모, 김승희 목사다. 특강과 실습이 병행된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는 위지엠(With Jesus Ministry, 대표 유기성 목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위지엠은 영성일기를 통해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단체다.

문의: 070-4480-1591~2

/ 이소정 기자

도곡교육관 창립 8주년 감사예배

3월 18일 오전 9시, 1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창립 8주년 감사예배를 3월 18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숙명여고 강당에서 드린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은 2010년 3월 14일 창립됐다. 다

음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곡교육관에서는 성인, 영어예배, 청년부 갈렙공동체, 차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도곡공동체와 강남C공동체가 섬기고 있다. 문의: 02-570-7444

두란노 ‘온누리 맞춤형전도 세미나’

3월 19일 오후 6시 서빙고 본당

두란노 온누리 맞춤형전도 세미나가 3월 19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 맞춤형전도 세미나에서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도방법과 복음전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강사는 여성민 목사(온누리교회 전도본부장)와 고정민 장로(복음의

전함 이사장)다. 여성민 목사는 ‘맞춤전도 원리’와 ‘구역맞춤전도 실제’, 고정민 장로는 ‘국내외 복음광고선교사역 사례 및 효과적인 전도 콘텐츠 활용’을 주제로 강의한다. 가수 박지현(V.O.S)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한다.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수강생 모집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주관하는 최고경영자과정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이 오는 3월 20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이정숙 총장(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광우 석좌교수(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진호 대표(더웬스인베스트), 조명환 박사(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 배상민 교수(KAIST), 박현우 대표(이노레드) 등이 강의한다.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입학원서 및 공동체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 오늘(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70-7095

www.christianceo.info



샷포로 기 · 도 · 제 · 목

- 3월 19일(월) 러브소나타 샷포로 집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 3월 20일(화) 러브소나타를 통해 다음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기를
- 3월 21일(수) 이재훈 목사님과 출연진, 실행위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 3월 22일(목) 스태프, 봉사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 3월 23일(금) 프로그램, 행사, 날씨, 교통, 음식,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 3월 24일(토) 샷포로의 교회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 되도록
- 3월 25일(주일) 기도하고 섬길 봉사자 160명이 채워지기를

■ 순장사관학교 수료 간증



/ 정태영 성도(S브릿지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리더십

공동체 리트릿과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나를 본 주변 사람들이 순장사관학교를 추천해 주었다.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았다. 당시 나는 베이커리카페 창업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분주했다. 방장님과 목사님의 추천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또한 오후 7시 열린 새신자에배 조명스태프로 섬기고 있었던 터라 오후 7시 반에 끝나는 순장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었다. 여유를 갖고 창업을 준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목사님 추천서도 받았다. 가장 염려했던 열린새신자에배 조명스태프 섬김은 순장사관학교에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순장사관학교의 꽃은 아웃리치였다. 두 조가 1박2일 동안 누군가를 섬기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팀원들의 의견도 빼먹지 못했다. 각자가 살아 온 방식이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섬기러 간 곳은 선교사님이 막 개척한 곳이었었는데 모든 것이 미비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두 번의 잔치를 계획했다. 열악한 부분을 보충하기에는 시간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

다. 식사팀의 필요한 물질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부족한 일손이지만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 두 번의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작은 사고도 나지 않았다. 부족한 손길은 S브릿지공동체 순장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됐다. 부족한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졌다. 두 번의 전도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재료 구입 하루 전날 우리가 준비하려던 삼계탕 재료를 후원받았다. 주님이 하시기 않았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베이커리카페를 준비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잠시 쉴 생각이었다. 순장사관학교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분명 공동체 활동을 쉬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아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셨다.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리더십이 되고자 한다. 순원을 치유하는 목자가 되고, 순원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서 순원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서서평 선교사 묘역 앞에서



/ 박근민 목사(윤군부사관학교)

성공보다 섬김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지난 1월부터 부사관학교에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5회의 상영이 계획되어 있다. 처음 이 영화를 상영할 때만해도 고민이 많았다. 기독교인 부사관 후보생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오랜시간 교회와 접촉점이 없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이다.

기우였다. 막상 영화가 상영되자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영화가 상영되는 1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상당수의 후보생들이 진지하게 관람했다. 무엇보다 기간장병들과 간부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의 심령에 베풀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난 8일,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흔적을 찾아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방문했다. 깊은 회복과 소망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이라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군교회는 교회를 찾는 구도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군교회를 섬기기를 꺼려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민간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양처럼 대해주는데 군교회에서

는 소처럼 대한다는 자조 섞인 말을 부정할 수 없다. 부사관학교도 그렇다. 열 명이 되지 않는 집사님과 권사님들께서 16주 동안 많은 때는 500명이 넘는 후보생들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신앙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 자신의 모든 것을 녹이고 태우는 그 헌신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분명 지질 법도 하다. 아니 이미 많이 지쳐있을 것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삼십 년 넘게 이곳을 지키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잘했다고 총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법한 그분들도 서서평 선교사님의 작은 묘역 앞에서 숙연해졌다. 부끄러워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강냉이 가루 2홉(약 600g),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하나만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다. 그래도 풍족한 우리네 상황에 감사하고,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됐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치러졌다고 한다. 그날 천여 명의 사람들이 낮선 이국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함께 울었다. 나도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성공보다 섬김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전도학교 참가자 간증



/ 전용우 집사(한강공동체)

내가 전한 예수님

추운 날씨에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입구에서 홍보물을 나눠주시는 집사님께 16기 전도학교 전단지 받기 위해 두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역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전도학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기 전도학교가 시작할 즈음 주일 오전에 잠시 짬이 났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도대상자로 삼은 고영관 형제(51)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전도학교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서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고영관 형제님은 새롭게 팀을 맡아 부담이 많은 것 같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굳게 붙들시기를 원하는 공화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다. 나는 그 형제님과 네 번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제시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눴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만약 형제님과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천국(또는 극락)에 갈 확신이 있는지를 여쭙어보았다. 그러면서 십

자가로 죄가 씻기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나눴다. 세 번째 만남에서 드디어 영접기도를 했다. 나는 함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그랬더니 사실은 자신이 5남매의 맏이인데 막내를 제외하곤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 자신이 받은 가족들의 기도문도 보여주셨다. 가족들의 중보기도가 쌓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라며 기뻐하셨다. 네 번째 만남은 저녁식사 약속이었다. 3시간 동안의 질문과 대답,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복음의 약속, 크리스천 삶의 가치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동안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다. 다음 달에 그 형제님을 다시 만난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입술의 할 말을 내 머리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중보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길 확신한다.

■ 제1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대상



/ 권하영 성도(영주제일교회)

엄마는 달랐다

지난 2013년 가을, 엄마가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늦게 발견한 터라 오른쪽 가슴을 모두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 시간이 멈추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나 때문인 것 같았다. 내가 하도 엄마 속을 썩여서, 엄마가 나 때문에 하도 많은 눈물을 흘려서 병에 걸린 것 같았다. 엄마가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의 배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었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엄마는 달랐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다. 손끝하나 움직일 수 없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엄마는 CGNTV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위태로운 숨을 내뿔으며 TV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내가 엄마에게 던진 물음이었다. 엄마는 그 시들한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리라 믿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 이 고통스러운 시련으로 주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그날 밤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매일 밤 엄마와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어 꽃망이가 만개하는 봄 엄마는 표적치료까지 모두 끝냈다.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엄마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고, 힘도 생기고, 웬만한 교회 일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붙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CGNTV 시청이다. 엄마는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도 늘 CGNTV 시청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매주일 저녁 방송되는 열린새신자에배를 꼭 챙겨 보신다. 그리고 매번 말씀하셨다.

“언제나 새신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정말이지 주일 저녁 열린새신자에배는 우리 가정에 큰 은혜가 되고 있다.

〈제2회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주제: CGNTV 시청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
마감: 3월 27일(화)
신청: CGNTV 홈페이지
문의: 02-3275-9446

장로칼럼

천국잔치집과 콩나물시루



임현태 장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남양주 온누리교회 C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발’ 팀 18명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인도와 네팔을 다녀왔다. 우리가 방문한 국가는 3억 3천만 개의 신(우상)을 숭배하고, 국민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나라다. 북위 10~40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종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방문한 북인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곳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만큼 선교가 어려운 나라이다.

우리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북국으로 돌아간 형제자매들과 남양주 온누리미션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고향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2~3곳 정도만 방문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해서 총 9가정을 방문하게 됐다.

A형제는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도로 돌아왔는데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척 안타까웠다. B형제는 몸이 아프다며 꼭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먼 길이었지만 그 형제의 집에 들러 그를 위해 기도했다. C형제는

작년 연말에 귀국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구입한 자동차 뒷유리창에 커다란 십자가와 함께 ‘Only Jesus’라는 글씨를 붙여 놓았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다. 그 형제는 우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 있는 세례 받은 형제들과 일가친척, 친구들까지 모조리 초대했다. 무려 50여 명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했다. 그 시간은 마치 천국에서의 교제 같았다.

다른 가정들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과를 내놓고 환영해주었다. 근처에 사는 친척과 주민들까지 초대해서 교제의 장을 만들었다. 방문하는 모든 곳이 천국잔치집이었다. 그들을 보면서 콩나물시루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콩나물에 물을 쥐도 콩나물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콩나물은 시루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주민들을 잘 섬기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성령님께서 그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팀의 평균 연령은 65세였다. 가장 젊은 멤버가 목사님이셨다. 연장자들이 많아 내심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인도와 네팔 땅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다.

권사칼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소자 권사
(서대문공동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했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YWCA(기독교 여자 청년회)에서 활동했었다. 하나님께서는 YWCA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 나의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를 경험했다. 작은아이가 일본 도쿄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아이의 친구들이 내게 온누리교회를 소개해줬다. 그 친구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샘솟기 시작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크고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수년 전에는 성경대학을 섬기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다. 지금은 권사회 성가대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다른 성가대원들로부터 기도제목을 받아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미가서 7장 7절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 주실 것이다”(미 7:7).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말씀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새 힘도 얻는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훨씬 크다. 그것을 발견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 나는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안에 계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습 3:17).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스바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존재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신다. 스바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 가족, 지인, 지역사회,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성경필사도 하고 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다.

신앙에세이



한희수 목사
(군선교 담당)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행 16:9-10).

군선교란 무엇인가?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싶다.

“길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에게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군선교는 길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에게로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군선교는 도상(道)의 선교이다. 군선교는 사도행전 16장 9~10절 말씀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가움’이다. 바울은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청이었다. 우리에게 오라는 손짓이었고, 와 달라는 호소였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간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가 바울에게로 왔다.

바울의 선교는 ‘다가움의 선교’였다. 군선교도 이와 같다. 군선교는 다가움의 선교다. 수많은 부대에서 와 달라고 손짓하고 있다. 수많은 부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군선교이다. 지금까

지 군선교는 그렇게 걸어왔고, 계속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둘째, ‘향함’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온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이 손짓하는 곳으로 향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것에게로 가는 것을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는 ‘향함의 선교’이다.

군선교도 바울의 선교와 같다. 군선교는 ‘향함의 선교’다. 오라는 손짓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짓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손짓에게로 향했고, 지금도 향하고 있다.

셋째, ‘도달’이다. 바울은 다가온 손짓에 이끌려 마케도니아로 향했고 결국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된다. 바울은 다가온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향하기만 한 것도 아니며, 그곳을 향해 갔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다.

바울의 선교는 ‘도달의 선교’였다. 이를 따가지고 또 가고, 향해하고 또 향해했다.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이처럼 군선교는 ‘도달의 선교’이다. 그러나 군선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선교이다. 아예 도달하지 못한다고 믿지 않는다.

생도와 사병의 ‘균형선교’라는 방향에 맞춰 군종목사단 및 CGNTV 등과의 협력선교를 하다 보면 63만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다. 군선교는 한반도의 통일세대를 세우는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 달려갈 것이다.

군선교를 위한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선교관 1층 101호

군선교는 ‘다가움, 향함, 도달’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생명과 하나님 나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성숙이 이뤄집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자리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깊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고백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이 달라짐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도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와 일컬음이라고 함당치 못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빌립보서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고백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결국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J.D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금, 빛, 누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누룩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려다가 밀가루 3사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33절).

‘사톤’은 헬라시대 물량 단위입니다. 3사톤은 32.4리터 정도 됩니다.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자라는 성장을 말하지만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누룩은 죄, 위선, 거짓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많은 양이 적은 양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더러운 물에 적은 깨끗한 물을 부으면 깨끗한 물이 더러워집니다. 좋은 흙도 많은 나쁜 흙과 섞으면 나쁜 흙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적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적은 양의 소금을 많은 양의 물에 타면 전체가 짭짤해집니다. 그 넓은 바닷물에 소금 농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은 빛이 어둠에 삼켜지지 않고, 그 빛이 어둠에 영향을 미쳐서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같고, 빛과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작고 미미해도 결국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진정한 힘은 생명과 살아있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소수처럼 보이고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존재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감춰져 있을지라도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주변에서 밀려 나는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금, 빛, 누룩의 존재를 회복한다면 그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영향력이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겨자씨처럼 자라나 큰 나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겨자씨로 시작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생명의 성장과 영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겨지고,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심겨짐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향을 주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서빙고 화재대피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본당, 비전홀)입니다.
-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 대피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과 본관 사이에 있는 동빙고 근린공원입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됩니다.

▶대피 이동 경로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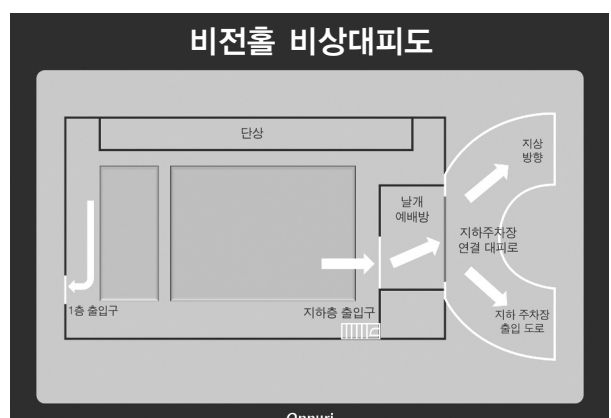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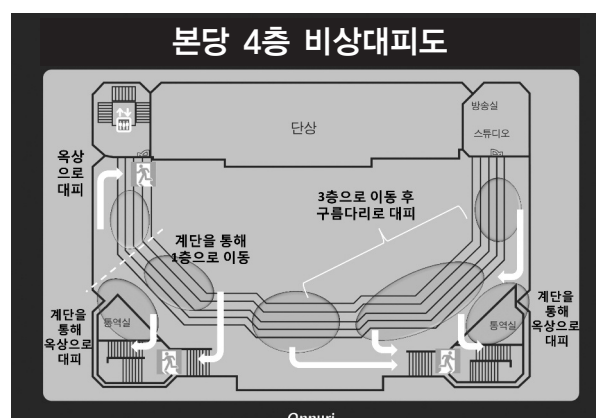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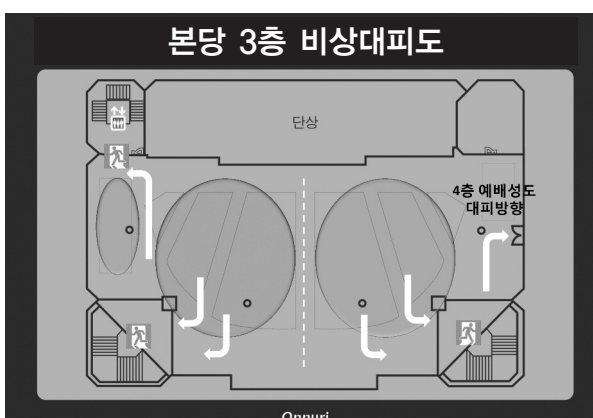
- ① 본당(3층) → 고가다리 → 선교관 → 동빙고 근린공원
- ② 본당(3층) → 좌·우 계단 → 로비 → 동빙고 근린공원
- ③ 본당(3층) → 파란 계단 → 로비 → 동빙고 근린공원
- ④ 본당(4층) → 좌·우 계단 → 옥상

비전홀

- ① 비전홀 → 비상 대피로 → 주차장 → 동빙고 근린공원
- ② 비전홀 → 지하통로 → 선교관 → 동빙고 근린공원
- ③ 비전홀 → 좌·우 계단 → 로비 → 동빙고 근린공원
- ④ 비전홀 → 서점계단 → 중앙통로 → 동빙고 근린공원

화재대피훈련 일정(3월 18일)

10:20 ~ 10:25	사전 설명	화재대피훈련에 대한 개요 설명
10:25 ~ 10:30	여건 조성	화재발생 상황전파(방송)/연막탄 사용, 본당 및 비전홀 소등
10:30 ~ 11:00	이동	대피장소(동빙고 근린공원, 옥상)로 이동/119출동, 화재진압절차 훈련
11:00 ~ 11:10	소산(消散)	대피장소 내 소산
11:10 ~	복귀	화재대피훈련 종료



Acts 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8년 3월 18일(주일) | 제1188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
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플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제 69회 성령수련회

일시: 4월 21~22일
접수: 아이스쿨
문의: 서빙고(010-7120-5221)
양재(010-8955-3610)

서빙고 창조신앙아카데미

기간: 4월 18일~5월 16일 오후 7시~9시
신청: 아이스쿨(타교회분은 선교팀 연락)
문의: 010-7292-2349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서빙고 보안관리팀, 서빙고 커피숍,
양재 커피숍, 양재관리부 전기팀(경
력자)

문의: 오종환(010-5100-6847)

탈북민 후원 물품 모집

대상: 하나원 소속 하나교회
내용: 60인치 TV
문의: 유주석 팀장(010-2004-1022)

샘물학교 교직원 모집

모집: 회계담당(3월 19일 마감)
특수교사(4월 3일 마감)
자세한 내용은 www.smca.or.kr 참고

서빙고 두란노 할인 안내

날짜: 3월 18일(전품목 할인)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

수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신약학
자격: 국내외 대학, 신학대학원의 해
당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
와 한국어로 강의 가능자

접수: 4월 16일~23일 17:00까지

문의: www.tfgu.ac.kr, 02-570-738

꿈아이놀이터(꿈터) 27기

대상: 22~38개월

기간: 3월 13일~5월 15일(10주)

시간: 매주 화 10:40~12:40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11:30 / 고등부~오전 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을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13th
개국 13주년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꿈, CGNTV

“CGNTV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도구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가서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CGNTV의 존재이유입니다.”

CGNTV 설립자 하용조 목사 메시지 중



선교사를 위한 또 하나의 교회

2005년



선교사의 영적 충전을 위해
24시간 365일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는 방송의 비전

2018년



170여 개국의 크리스천, 1만 1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CGNTV를 통해 영적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복음의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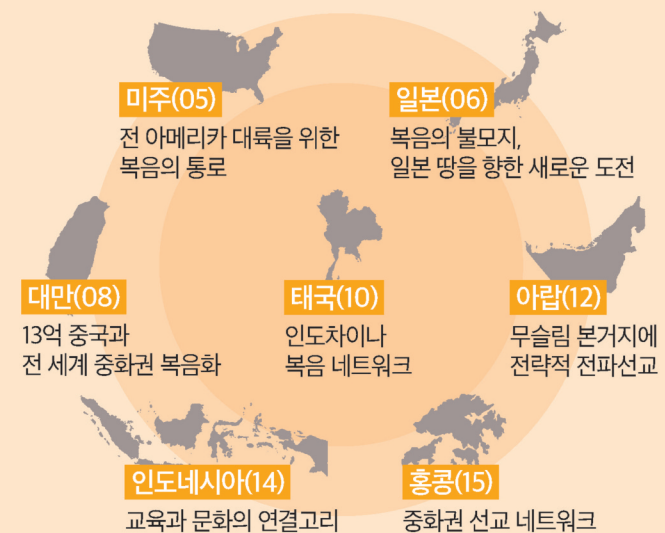
2005년



복음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의 비전

2018년

7개 해외지사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됩니다



다양한 시청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2005년



세상에 없는 가치와 감동을 담은
콘텐츠 제작의 비전

2018년



영화, 드라마, 다큐, 문화, 교육, 어린이,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과 감동을 나눕니다

2018년, CGNTV는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겠습니다